

▣ **줌인 동남아시아** ▣  
**Zoom-in Southeast Asia**



**파푸아 여성운동의 심볼,  
요세파 알로망(Yosepha Alomang)**

강영순\*

KANG Young Soon

**요세파 알로망(Yosepha Alomang)!**

**인도네시아 서 파푸아(Papua Barat) 원주민 인권을 위한 여성운동의  
표상!**

그녀는 1999년 12월에 ‘얍 티압 히엔(Yap Thiam Hien)상’을 수상했고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드만상(Goldman Award)’을 수상한 인물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서 파푸아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억압에 저항한 용기 있고 일관성있는 추진력과 희생정신을 지닌 영향력있는 여성운동가이다. 1967년 서 파푸아 락시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sayakang@hotmail.com

까(Timika)에 설립된 금, 은, 구리광산인 미국 프리포트(Freeport) 회사 소유 광산 폐기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중금속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가축들이 피해를 보고 물이 오염되는 상황에서 여성운동을 조직화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결탁한 글로벌 자본주의로 인한 불평등에 맞서 싸운 인물이다.



<그림 1> '골드만 환경상(The Goldman Environment Prize)' 수상시(2001)의 모습.  
(출처: [http://www.riverdeep.net/current/2001/08/081301\\_activists.jhtml](http://www.riverdeep.net/current/2001/08/081301_activists.jhtml))



<그림 2> '골드만 환경상(The Goldman Environment Prize)' 수상시(2001) 그리이스, 볼리비아, 미국, 르완다, 스코틀랜드 등 다른 국가 수상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함. 앞 줄 가운데 앉아있는 수상자가 요세파임.(출처: The ambassadors)

그의 일상생활은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기 위해 항상 억압과 폭력과 투쟁하는 것이었다. 파푸아 인권을 얘기할 땐 불평등을 위해 싸운 파푸아 여성운동의 표상으로 항상 그녀의 삶이 거론된다. 최근엔 지방특별자치제로 인하여 예전만큼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그녀의 투쟁을 통해 개인이나 종족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선 남성이나 지식층만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모두의 임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요세파 알로망은 싱아(Tsinga)에서 태어난 시골여성이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어머니의 재혼으로 계부 아래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녀는 계부인 필리푸스 알로망(Philipus Alomang)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다. 음식을 천으로 싸서 숨겨뒀다가 주곤 할 정도로 요세파를 사랑으로 돌보았다. 형제들로부터 요세파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남다른 사랑 때문에 그의 이름에서 ‘알로망’을 따 왔다. 이러한 요세파에 대한 의붓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여덟 명의 자녀들로부터 시샘도 많이 받았다. 아버지가 외출하면 형제들이 요세파를 때리고 괴롭히고 불로 지지기도 하고 굶기곤 하였다. 그로 인해 요세파 스스로 강에서 고기를 잡거나 동네 아주머니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음식을 얻어와 아버지와 함께 먹었다.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 몇 차례 옮겨 다니다가 아기무가(Agimuga)마을에서 비로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4학년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잦은 이사와 가족들의 강요에 따른 결혼 때문에 더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침내 그는 1970년대 초반인 15세 때 전통관습의 형태로 결혼을 하게 된다. 아무도 그를 돌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30세 정도인 신랑 마르쿠스 왈릭(Markus Kwalik)은 기독교인이고 자신은 가톨릭교인이었다. 서 파푸아에서는 혼인을 하려면 결혼지참금을 신부의 가족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전통관습이 있다. 재산과 돼지 혹은 지참금을 신부 가족에게 주고 신부를 신랑집으로 데려가는 관습이다. 그런데 결혼지참금을 요세파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세파는 블라마카마(Belakmakama)에서 아기무가로 다시 돌아오라는 부모·형제의 권면에 따라 돌아가게 되었지만 결국엔 다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다. 가족들은 사위가 결혼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하려 했지만 요세파는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

요세파는 관습에 따른 혼인예식이 아닌 정식으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원하였다. 마몽메(Mamungme)족은 거의 모두가 가톨릭교도이기 때문에 남편도 가톨릭교인인 줄 알았다. 결혼 후에야 남편의 종교를 알게 되었고 남편은 요세파에게 교회에 나가자는 권유를 하였다. 그러나 요세파는 자신의 종교를 바꿀 수 없다는 신념을 남편에게 분명히 밝히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요세파는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요세파는 순조롭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남편 또한 그러한 이유를 들어 결혼을 한 후에도 결혼지참금은 지불하지 않았다. 요세파가 자녀들을 출산한 후에도 지참금은 지불되지 않은 것이다. 더 이상 남편 가족이 친정에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요세파는 친정에 지불해야 하는 결혼지참금을 손수 마련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한편 남편은 띠미카로 이사한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방향제시도 해 봤지만 결국엔 남편으로 인해 요세파가 쌓아올린 가정이 파괴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후일에 결혼지참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된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요세파는 극빈자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성당활동에 적극적으로 봉사하였다. 이 성당에서 후일에 요세파를 중심으로 한 부인회가 조직되었는데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 가정을 방문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 모임의 일원들이 후일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이 협동조합은 후에 ‘꿀랄록(Kulalok)’으로 명명된다.

서 파푸아에서 여성에 대한 통념은 자녀를 돌보고 돼지를 사육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가운데 요세파와 같은 여성은 어떠한 모임이든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요세

파의 이상을 꺾을 수 없었다. 요세파는 이러한 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개의치도 않았다. 자신의 방식으로 그의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남성들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아몽메족 문화에선 요세파와 같은 여성의 형태는 있을 수가 없었다.

요세파는 남성의 우월주의와 여성 천시에 대해 과감하게 비평했다. 그는 여성들의 지위 및 존엄성을 천시하는 문화를 신랄히 비평하였다. 요세파는 해야 할 얘기는 망설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성격이다. 표준 인도네시아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담대하게 말하고 좋은 싫든 상대방에게 그의 말은 어필이 되어졌다.

이러한 그의 용기가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잘못된 문화는 고쳐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남성과 동일한 인간인 여성을 천시하는 잘못된 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프리포트 회사가 요세파라는 인물에 주목하며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프리포트에 그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같이 요세파가 프리포트 회사를 포함한 군 및 관료들을 상대로 인권에 대해서 투쟁을 한 배경은 요세파 주변 사건들에 대한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세파는 9세쯤 파푸아에 온 인도네시아인을 처음 만나고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익사할 뻔 했던 적이 있다. 파푸아 주민들은 얼굴이 검기 때문에 파푸아 주민들의 눈에는 파푸아에 들어온 자와인들과 같은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매우 하얀 피부를 가진 종족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은 람보우(Lambau) -화란식민시대에 농업 책임자에게 붙였던 ‘landbouw’ 호칭에서 따 옴- 라고 불리웠으며 그들이 아몽메 종족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들어오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당시에 아몽메 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기무가(Agimuga) 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킨 적이 있다. 그 때 이주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손과 발을 묶어 강제로 이주를 시켰다. 요세파의 아버지는 람보우를 자의적으로 그대로 따라갔다. 그로인해 요세파는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고 친척집에서 지내다가 아기무가에서 가족이 만나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요세파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요세파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유도 군과 정부와 프리포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술을 가지고 들어와 의도적으로 술을 통해 원주민들을 죽이려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술을 몰랐던 남편을 중독자로 만든 것도 그들이며 가정이 파탄된 것도 그들 탓이라고 믿는다. 결혼 초기엔 성당 일로 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느라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남편이 가사일도 도와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남편의 음주는 심해지고 요세파가 모아서 구입한 땅도 몰래 팔아버리고 항상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의 활동도 반대하는 등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엔 1998년에 이혼을 하게 된다. 여섯 자녀 가운데 둘은 사망하고 넷만 있는 상태였다. 가톨릭에선 이혼은 금지되지만 부부가 모두 가톨릭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기도 하다. 그의 결단에 따른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훗날 요세파는 이 순간을 떠올리며 ‘그 때 내가 그대로 남편과 살았다면 평생 많은 사람들을 위한 봉사과 투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남편은 의심도 많고 애들과 앉아있는 자체도 시샘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자유로운 기분이다.’라고 얘기한다. 요세파의 적극적인 성격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삶보다 사회봉사와 인권 및 가톨릭 교회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요세파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은 조합을 통해서이다. 오래전인 1967년에 프리포트 회사가 띠미까에 세워졌지만 원주민들에 대한 회사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은 너무나 열악하다. 주민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울창한 삼림 속에 거주한다. 주거는 자신들이 세운 집에 기거하지만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지어준 집들에도 많이 거주한다. 요세파가 부인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더 바쁜 사회활동과 인권침해에 대항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서 1980년대엔 여러 민간단체에서 요

세파가 지도하는 부인회에 와서 회원들의 활동을 도왔다. 요세파는 자주 회원들과 함께 띠미까를 방문하여 프리포트 회사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 거주환경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곤 하였다. 주민들은 프리포트 회사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군과 정부로부터 오는 고통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 군, 정부 등 세 요소는 그들의 관찰구역에서 주민들을 억압하는 연합세력이다.

1977년부터 워나스(JB.Wenas)군수에 의해 여러 종족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아몽메 종족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 군수 또한 가톨릭교인이었지만 가톨릭 주민들을 핍박했다.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다. 그때부터 아몽메족은 몇 년간 군인들과의 투쟁으로 인해 모든 면에서 낙후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들이 띠미카로 이주를 하였다. 띠미카로 이주한 주민들은 곧바로 어려움을 당했다.

프리포트 회사설립을 위해 주민들과의 상의도 없이 주민들의 토지를 점유한 것이다. 도로, 주거지 등을 폭력과 무력으로 뺏어간 것이다. 이러한 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1986년부터 대항하기로 결의했다. 프리포트가 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서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삶에 대한 권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인 1986년 1월경에 띠미카에 가톨릭 사제 나포르 고베이(Nator Gobay)신부가 오게 되고 그는 자주 요세파를 찾아와서 그의 활동을 돕기 시작하였다. 1989년경에 요세파에게 프리포트 회사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의 잔혹한 행위를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 당시 요세파는 20명 정도의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그동안 요세파와 부인들의 활동을 지켜본 나포르 신부는 요세파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나포르가 가정주부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했고 마침내 부인들이 조합을 형성하도록 도왔다.

후에 이 협동조합은 꿀랄록(Kulalok)이라 불리우게 된다. 나포르 신부는 협동조합 회장으로 요세파를 지명하여 세운다.

요세파를 회장으로 세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담함을 지니고 있는 인물,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있게 투쟁을 해 나가는 인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에 솔선하는 인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물, 주민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인물 등의 요소로 인하여 요세파가 회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협동조합이 설립된 배경엔 사제의 역할이 컸다. 부인들의 소규모 기도모임이었던 것이 사제에 의해서 조직화한 것이다. 파푸아에선 어떤 일을 진척시키기 전에 꼭 전통의식을 행하여야만 한다. 돌을 태우는 의식이다. 조합설립행사시에 주민 모두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사제는 돌을 태우는 의식만을 행하려고 했지만 부인들은 다섯 마리의 돼지를 잡을 것을 계획했다. 관습에 따라 조출한 의식을 치르려고 하였지만 부인들은 다섯 마리의 돼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가 되었다. 돼지를 잡을 때 ‘피가 땅을 적시면 앞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이 번창하고 순조로울 것’이라는 신념으로 행하는 감사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그 이후에 회원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의적으로 돈을 모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협동조합이 세워졌다. 이 모든 것이 요세파의 지도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사제는 단지 부인들에게 동기를 불어넣어줬을 뿐이라고 말한다. 부인들은 협동조합 구상을 미리 한 적은 있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제의 제안이 결정적인 구심점이 된 것이다.

처음엔 야채를 팔아 현금을 모았지만 구매자가 가족들뿐이었기 때문에 점차 모든 물품을 취급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이름을 앞에서 언급된 'Kulalok'으로 명명했다. 이 명칭은 ‘끌린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몽메(Amungme)어에서 따 온 것이다. 구매자들이 늘어나 조합이 발전할 것이며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그 당시 정부소유의 협동조합도 있었다. 정부는 모든 조합이 정부조합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요세파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조합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부인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저울을 볼 줄도 몰랐기 때문에 쉽게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수차례 정부가 운영하는 조합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의해 속임을 당한 적이 있어 조합에 가서 직원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 곳에 있는 물건들을 파손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나또르는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나또르가 오기 전엔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때마다 요세파는 군과 정부 혹은 프리포트사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조합장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성격이다. 이 협동조합은 파푸아의 중심도시인 자야뿌라(Jayapura)가톨릭 교구와 파푸아 기독교복음교회에서 현금이나 물건의 형태로 후원을 한 적은 있지만 부인들은 이러한 후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목표로 하여 부지런히 뛰고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한다.

그 당시 부인들의 자금을 불러나가는 방법은 놀라웠다. 파푸아엔 예전부터 개인이나 종족간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곤 한다. 소금을 거래할시에도 조개껍질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했다. 적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지불수단의 형태가 다르다. 부인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조합을 키워나갔다.

나또르 신부가 오기 전엔 요세파가 있는 마을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프리포트에선 전혀 구매를 하지 않았다. 자연히 주민들은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허덕이게 된다. 주민들은 군인들과 프리포트와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들에 의해 진척되고 있는 것만을 지켜볼 뿐이었다. 요세파는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리포트가 조합의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접촉을 해 보았다. 주민들의 농산물을 조합에 모아서 프리포트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프리포트는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농산물을 구매하지도 않았다. 프리포트의 모든 식료품은 자야뿌라, 자카르타, 머나도, 호주 등지에서 조달이 되어졌다. 생각다 못해 요세파를 중심한 조합원들과 주민들은 ‘데모’를 통한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한번은 공항에서 프리포트사가 외부로부터 들여온 야채들을 조합원들이 썰어서 몽개버린 적이 있다. 또한 프리포트 회사 자체 조합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요세파는 수 차례에 걸쳐 띠미까 소재 군부대와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군 권력을 이용하여 죄도 없이 투옥된 아몽메인들과 다른 파푸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준 것 때문에 더 자주 감옥을 들락거리게 된 것이다. 여러 명이 요세파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다. 요세파 자신도 1994년에 파푸아독립조직에서 활동하는 켈리(Kelly Kwalik)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장실 물통에 갇혀있었던 적이 있다. 켈리는 요세파를 LEMASA 지도자로 알고 의류, 바늘, 바느질 실, 그물 등을 구입하도록 150만 루피아를 주었다. 요세파는 그 돈을 여성회원들에게 나누어주어 각각 물품을 구입하게끔 하였다. 며칠 후 물품들을 구입해서 모아놓았지만 요세파 일행은 인도네시아 비밀경찰의 미행을 당하게 된다. 당시엔 미행자들이 길을 잃게 되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5일후에 요세파는 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된다. 그 이전에 이미 몇 명의 아몽메인들이 체포된 상태였다. 요세파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중에 못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린 자녀들은 누가 돌봐야 하는지와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다. 아몽메족의 전통관습에 따르면, 고아는 내버려진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는 너무나 슬펐다. 그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세파와 율리아나(Yuliana)부인과 함께 대소변을 받아두는 정화조 콘테이너 박스에 감금되었다. 밖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사람들이 볼일을 볼 때마다 배설물이 들어와 냄새가 코를 찌르고 견딜수가 없었다. 1개월간 그곳에 갇혀있었다. 경찰이 먹다남긴 음식을 구멍을 통해 버리면 그것을 먹고 지냈다. 처음엔 냄새가 역겨워 먹지를 못했지만 상황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내어 찌꺼기를 먹으면서 버텼다. 감금된지 1주일 후부터 들은 취조를 받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정화조 박스에서 데리고 나와 취조를 한 것이다. 율리아나 부인은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에게 체벌이 가해지곤 했다. 큰 철근 하나로 머리에 이고 있게도 하고 뒤에 놓고 앉게 하기도 하고 대퇴부에 놓은 후에 쪼그리고 앉게 하는 등 지칠때까지 반복하게 하다가 그를 정화조 박스로 다시 데려간다. 반면에 요세파에 대해선 취조에 혼선이 왔다. ‘요세파 알로망’이 아니라 경

찰이 질문하는 이름은 ‘요세파 께몽’이었기 때문이다. 경찰들을 여기 저기 알아보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난감해했다. 1개월동안 갇혀있다 풀려나고 난 후에 요세파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내가 아직 살아있지? 하나님이 아직 내 목숨을 지키시는구나. 아직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위해 투쟁을 하게하기 위해서야.”라고 말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는 조합일에 전념하였다. 조합은 점점 더 번창해 나갔다. 조합이 번창함으로 인해 조합의 노력으로 가족들을 위한 집을 짓게 되고 전기시설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서 프리포트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부인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프리포트는 야채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진다. 당연히 조합은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다.

조합은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주민들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제는 점점 더 번창해져서 자립을 하게 되어 나포르 신부도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게 되고 협동조합 회장도 다른 인물로 교체가 된 상태이다.

요세파와 조합을 도우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나포르 신부가 비악(Biak)으로 떠나가게 되고 후임으로 온 존 종아(John Jonga)신부도 조합을 돕다가 인권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 더 이상 예전같이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존 신부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다. 2001년에 존 신부가 플로레스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요세파를 데려간 적이 있다. 세미나에 참여하여 신부들과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플로레스에는 많은 신부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 파푸아엔 신부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위해 얘기하고 우리와 함께 투쟁하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라고 하였다.

물론 파푸아에도 많은 신부들과 목사가 있다. 단지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동체와 함께 전력을 다하는 신부들과 목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는 의미이다. 또한 그는 “신부님들과 종교지도자 여러분! 우리 파푸아의 부가 도적질당하고 있고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있으며 힘없는 자들은 살해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말하지 않습니까?”라고 파푸아의 인권을 위해 강력하게 얘기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신부들은 경탄하였고 요세파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존 신부에게 물었다. 존은 “요세파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소.”라고 대답했다. 요세파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신앙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요세파는 수 차례의 세미나 참석을 한 후에 음주운동을 펼치기로 한다. 여성에게 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설명 등이 요세파와 회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모임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경찰에게도 누가 판매를 하는지 술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지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하기로 결의했다. 존 신부가 비폭력 시위의 형태로 음주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을 구상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몇 가지 규정을 정하였다. 첫째, 정부가 띠미까로 술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둘째, 군과 경찰이 아이들과 가족들을 상대로 술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이러한 목적으로 곧바로 데모를 시작했으며 각 가정마다 방문하는 등 실행으로 옮겼다. 요세파가 직접 이 캠페인을 주도하였고 이틀째 날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존도 어린이를 안고 있으면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함께 체포되었다. 요세파 일행은 존을 풀어주지 않으며 자신들도 경찰서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군수가 띠미까에 술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은 임시방편의 속임수였다. 주민들을 속인 것이다. 며칠 후에 다시 술을 팔기 시작했다. 요세파 일행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국가법 실행자들도 도둑이고 강도로 간주하였다.

1980년대부터 이삭 오노와메(Ishak Onowame) 목사도 프리포트를 상대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요세파와 부녀회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도왔다. 요세파가 몇몇 아몽메인들과 투옥되어 있을 때 이삭 목사가 밖에서 구명활동을 펼쳤다. 그 당시 이삭 목사는 1983년까지 파푸아 기독교복음교회만이 아니라 가톨릭교회를 담임하였다. 그의 임무는 아몽메인들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3년 후부터 이삭 목사는 요세파와 회원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함께 주민들에 대한 프리포트의 지나친 조치를 거부하였다. 아무도 프리포트의 영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프리포트 직원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버려놓은 것을 가져와 먹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는 임신부들과 아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주민들의 분노

는 항상 정치와 연계시키곤 했다. 인권을 위해 투쟁을 하는 주민들을 체포하고 살해하기 위한 구실을 삼는 것이다. 이삭 목사는 프리포트, 기자, 군 등과 연루된 문제들과 관계된 기구들 간에 통역자로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여 요세파에겐 큰 힘이 되었다.

그동안 요세파와 조합원들이 정부권력과 기업횡포에 대항하여 전개하는 모든 운동은 국가법에 준해 한 것이 아니라 부인들에 의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나갔다. 이제는 그러한 형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형태로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나포르신부와 베아날(Tom Beanal)과 함께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그 결과 프리포트 회사의 공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아몽메 주민대표조직의 형태인 르마사(LEMASA)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LEMASA 재단하에서 체계를 갖추어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해 나갔다. 이로써 아몽메 주민들의 소리가 강력해지고 재단을 통해 해외에까지 전달되기까지 하였다. 이제 LEMASA는 하나의 투쟁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러나 LEMASA재단에서는 요세파가 큰 역할을 맡지 못했다. 아몽메족의 시각으로는 여성은 나약하고 항상 두 번째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요세파의 투쟁은 파푸아, 특히 아몽메족들과 산지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여성은 단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자녀를 돌보고 돼지를 사육하는 정도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다.

후에 여성운동가로서의 명성을 날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LEMASA는 초기부터 아몽메족의 자존심과 주체성과 명예를 위해서만 투쟁을 했다.

LEMASA는 잃어버린 국민의 권리와 주체성을 위해 투쟁하는 요세파의 이상과는 달랐다. 재단은 돈을 모으는데만 신경을 썼으며 아몽메족을 위해서만 활동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은 재단의 형태가 돈을 모으는 목적만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요세파의 순수한 의도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요세파측으로 가서 활동하게 된다.

요세파는 새로운 조직인 야하막(YAHAMAK)재단을 구상하고 있었다. YAHAMAK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띠미까의 인권투쟁을 후원할 수 있는 재단이었다. 압 티암 히엔(Yap Thiam Hien)으로부터 받은 상

금 1천 만 루피아로 YAHAMAK 설립을 계획했다. 띠미까 인근주민들을 위한 인권투쟁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띠미까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세파를 도왔던 존 룸비악(John Rumbiak)은 자야뿌라로 가서 사무실을 두고 전 파푸아와 해외에서 파푸아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였고, 나포르(Nator)신부는 1998년에 비악(Biak)으로 가서 그 지역의 인권활동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둘째, 요세파는 LEMASA가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주는 중심역할을 하는 목적을 지녔지만 조직내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그림 3> '서 파푸아 인권운동가'이자 '얍 티암 히엔 상(Yap Thiam Hien Award)' 수상자인 요세파 알로망은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밤에 소순다열도의 동부 망가라이군 누누르(Nunur)마을 왈란족 전통가옥에서 전통의식으로 환영을 받으며 왈란족 촌장으로부터 전통직조된 천인 송갯을 선물로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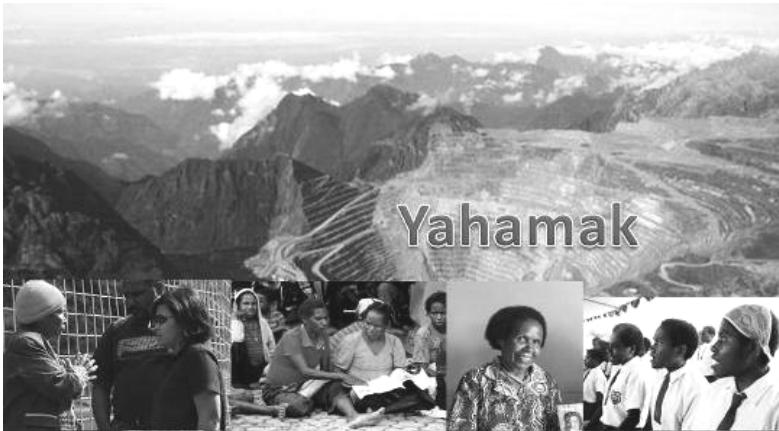
(출처: Kompas.com)

이러한 요인들과 파푸아 인권에 대한 침해와 살해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1천 만 루피아의 자본을 가지고 서 파푸아의 중심도시인 자야뿌라(Jayapura)로 출발했다. YAHAMAK설립을 위한 후원과 조언을 통해 확신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것을 위해 인권과 관련있는 몇몇 인물로부터 자문을 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자야뿌라에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존과 상의를 하고 비악에 있는 나포르 신부에게도 가서 자문을 구했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지지하지 않았고 분명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 요세파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제시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레오 라바 라자르(Leo Laba Ladjar)주교에게 띠미까에 YAHAMAK를 설립하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부탁했다. YAHAMAK 재단 창립식때 오기로 약속을 하였다. 헤르만 사우드(Herman Saud)목사도 현금후원과 함께 지원을 약속하였다. 4개월동안 준비하고 있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존이 띠미까에 YAHAMAK 재단을 설립하도록 도왔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파푸아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해서 함께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목적이었다.

요세파가 1기 회장이 되었다. 마침내 2001. 1. 23일에 띠미까에 설립되고 자야뿌라 주교의 대리로 위임을 받은 나포르 신부에 의해 공식화된다. 수십 마리의 돼지를 잡아 띠미까 주민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파푸아 주민들은 자유롭고 안전한 상황에서 공식 창립행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파푸아는 평화의 지역’임을 공표했다. 따라서 요세파는 정보기관에서 사람들이 YAHAMAK 단지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띠미까 경찰서에 부탁을 하기도 했다.

요세파가 ‘골드만 환경상(The Goldman Environment Prize)’을 수상하기 수일 전에 프리포트 회사는 요세파에게 후원금을 주기로 공고하였다. 프리포트가 체면유지를 하기 위함이었다. 프리포트는 이 기회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 이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 간주된다. 프리포트는 이 기회에 주민과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는 모습을 만방에 드러내고 싶은 의도였다. 요세파는 속이는 것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간주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요세파는 프리포트 회사로부터 ‘골드만(Goldman) 시상식 전에 요세파를 후원하겠다’는 전갈을 받았다. 요세파는 아몽메인들과 외부인들이 설립한 재단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YAHAMAK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프리포트가 이미 세계에 알리고 언급한 기금을 빨리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세파는 프리포트측에게 진료소, 강당, 인권동상, 고아원 등을 갖춘 야마학 단지(YAHAMAK Kompleks)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프리포트는 이에 동의하였으며 양측이 발리에서 모임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 YAHAMAK은 파푸아의 모든 종족과 민족의 소유임을 강조하였다.



<그림 4> 야하막(YAHAMAK: Yayasan Hak Asasi Manusia dan Anti Kekerasan, 인권 및 비폭력재단) 설립자 '요세파 알로망'과 활동 모습.  
 (출처: <http://politik.kompasiana.com/2012/03/08/120-ribu-kasus-kekerasan-perempuan-%e2%80%9ckado%e2%80%9d-women%e2%80%99s-day-tahun-ini/>)

수상 전인 2001년 2월에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포럼을 통해 듣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파푸아 주민 대학생 네 명을 각각 면회하기도 하였다. 기독교대학교를 막 졸업한 마띠우스(Matius Rumrapuk), 자카르타의 한 대학교 학생인 요셉(Joseph Wenda), 반둥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인 라운(Laun Wenda), 족자카르타의 가자마다 법대생인 존(John Gobay)등이다. 그들은 자카르타에 소재한 화란 및 미국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해서 투옥되었던 것이다. 2개월 후에 다른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 요세파가 면회를 갔다. 3시간동안 머물면서 요세파는 음식을 넣어주고 돈도 조금 넣어주고 약도 넣어주었다. 마띠우스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서 우측 발이 거의 불구가 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요세파는 그들에게 “감옥에서 두려워하지마라. 투쟁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나도 너희들처럼 감옥에 간 적이 있어”라고 위로했다. 요세파는 파푸아 족의 운명과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눈물을 흘렸다.

요세파는 Goldman을 수상한 후에 돌아와서 프리포트측에 수상전에 약속한 기금을 달라고 촉구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푸아 의회에도 항의를 했다. “파푸아 독립은 파푸아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푸아 독립을 위해 더 이상 파푸아 주민들을 속이지말고 투쟁을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들은 파푸아와 주민들을 위해 해외에

서 파푸아 독립을 위해 투쟁한다고 주민들 앞에서 말하지만 그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세파가 분노한 것이다. 그로인해 주민들은 더욱 더 프리포트를 불신하게 되었다. 그들 투쟁의 대상이었던 프리포트는 정부 및 인도네시아군과 그 곳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파푸아 주민들의 지원을 받는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이었다.

1999년 12월, ‘Yap Thiam Hien’ 수상시에는 압두하르만 와히드 대통령 재임시에 수상한 것으로 대통령이 수상 초청장을 보냈지만 요세파는 자카르타로 가지않고 파푸아에서 받겠다고 했다. 파푸아의 모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받고 싶었던 것이다. 정부측은 요세파의 청을 수용하여 함께 초청받은 85명의 팀과 함께 자야뿌라로 가서 수상을 하였다. Goldman상은 2001년 4월 23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상하였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30년이상 프리포트는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였습니다. 이 상과 함께 미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프리포트가 저지른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두의 진심어린 축복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림 5> 『요세파 알로망(Yosepha Alomang)』책 표지.

이제 요세파는 명실상부한 여성운동가로서의 심볼이 되었다.

그의 열정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2001년에 Goldman Prize를 수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가난하고 무지한 파푸아 주민들이지만 자신들이 살고있는 곳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땅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파푸아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준 요세파! 그는 파푸아 자유를 위해 싸운 서 파푸아의 진정한 어머니이다.